

2015.03.20

# 주간

##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 Contents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베트남사무소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신한은행, 베트남 호찌민시 안동지역에 신규 개점
- ▶ 수출입銀, 베트남·미얀마에 8천100만달러 차관 제공
- ▶ 한신공영, 베트남서 269억 규모 연결도로 공사 따내
- ▶ 알티캐스트, 베트남 국영기업 통한 안정적 해외매출 기대 - 유진투자증권
- ▶ 케이엠더블유, 베트남에 1180억원 규모 공장 설립 계획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외국계 기업들, 여전히 국내 인력의 질에 불만
- ▶ 센트럴 그룹, 베트남에 사업 확대

###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고속 도로 촉진 가속 총연장 2500km, 민간 투자 유치 강화
- ▶ 건설 은행, 중앙 은행이 지분 전체 취득으로 완전 국유화
- ▶ 민간 3개사, 다낭 공항 국제선 터미널 건설에 의욕 나타내
- ▶ 페트로비엠티, 빈선 정유소 경쟁력 잃어
- ▶ 하롱 베이 1조 동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착공
- ▶ 빈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 더블 수상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하노이시, 7 개 공업단지 및 첨단기술단지 투자유치
- ▶ 베트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기대치 높아
- ▶ 베트남, 고위공직자 해외에 자산축적 금지 추진
- ▶ 베트남 스마트폰시장 급성장...삼성, 저가폰에 '고전'
- ▶ 베트남, 동남아국가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 1 위
- ▶ 2014 년 휴대 전화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3%증가, 가격 저하가 영향
- ▶ 연초 2 개월간 무역 수지 12.1 억 USD 적자



- ▶ 베트남산 청과물의 50%는 중국에 수출
- ▶ 베트남, EC 시장, 2015 년에도 계속 확대 성장
- ▶ 베트남,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발족으로 전통 수공업 마을에 새로운 위기
- ▶ 자동 정산 틀게이트 시범 시행
- ▶ 베트남, 휘발유 오일에 대한 환경 보호세 3 배 인상

###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신한은행, 베트남 호찌민시 안동지역에 신규 개점

- 신한은행은 베트남 호찌민시 최대 화교 상권인 안동 지역에 점포를 신규 개점했다고 19 일 밝혔다
  - 호찌민시 중심부 남서쪽에 있는 안동지역은 안동시장, 안동플라자를 중심으로 대형 상권이 밀집함
  - 신한[005450]은행은 "안동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순수 베트남 고객을 상대로 소매영업(리테일) 시장 공략이 가능한 곳"이라며 "이를 위해 베트남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인을 지점장으로 선임했다"고 소개함
  - 신한은행은 2011 년 베트남에서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지점에서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 방식을 전환함
  - 신한 베트남은행은 이번 안동지점 개점으로 베트남에 11 개의 채널을 보유하게 됐으며, 올해 안에 3 개 영업점(하이퐁, 타이응웬, 팜홍)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임
- \* 출처: Yonhapnews, 03.19

#### 수출입銀, 베트남·미얀마에 8천100만달러 차관 제공

-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과 미얀마가 각각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총 8 천 100 만달러(약 907 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차관으로 제공한다고 19 일 밝혔다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 년부터 정부가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임
- 올해 2 월 말 기준 55 개국 334 개 사업에 대해 약 11 조 6 천억원(승인 기준)을 지원 중임



- 수출입은행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재무부 차관을 만나 '티엔탄 상수도 2 차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3 차 사업'에 총 2 천 500 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한다는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함
  -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17 일 미얀마 정부가 추진하는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5 천 600 만달러의 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함
- \* 출처: Yonhapnews, 03.19

### 한신공영, 베트남서 269억 규모 연결도로 공사 따내

- 한신공영은 19 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269 억원 규모의 밤콩교량 접속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0 일 밝혔
  - 이 공사는 베트남 교통부가 발주한 것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재원으로 수행됨
  - 이 공사는 지난해 한신공영과 GS 건설이 공동 수주해 시공 중인 베트남 밤콩교량에 진입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30 개월에 걸쳐 밤콩교량의 동·서 진입로와 추가 교량 3 개를 건설하면 됨
  - 한신공영 관계자는 "올해 들어 벌써 3 건의 해외수주 성과를 올려 고무적이다"라며 "당분간 재원이 확실한 안정적 사업 위주로 사업을 확대하되 앞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투자사업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함
- \* 출처: Yonhapnews, 03.20

### 알티캐스트, 베트남 국영기업 통한 안정적 해외매출 기대 - 유진투자증권

- 유진투자증권은 20 일 알티캐스트에 대해 베트남 국영기업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 만 7200 원을 유지함
- 박 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알티캐스트가 베트남 국영기업 비에텔그룹과 지난해 9 월 체결한 406 억 7000 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IPTV 셋톱박스(STB) 보급이 예상돼 추가 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박 연구원은 “지난해 알티캐스트는 국내 HD 방송 전환에 따라 로열티 수익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162 억원으로 전년비 12.6% 줄었다”며 “올해는 UHD 방송 확대로 셋톱박스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하반기 북미 대형케이블방송사 셋톱박스에 미들웨어를 공급해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힘

○ 이어 “올해 예상실적 대비 알티캐스트의 주가(PER)는 12.4 배 수준으로 국내 IT, 서비스 업종 평균 PER 인 19.5 배에 비해 36.9% 낮은 상태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임

\* 출처: Etoday.co.kr, 03.20

### 케이엠더블유, 베트남에 1180억원 규모 공장 설립 계획

○ 케이엠더블유는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와 대규모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베트남 하남성 소재 동반공단 1 지구 내에 1180 억원 규모의 공장 설립 계획이 있다고 18 일 공시함

○ 회사 측은 자사주, 리스, 국내 및 베트남 금융권 차입과 기존 국내공장 통폐합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Etoday.co.kr, 03.18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외국계 기업들, 여전히 국내 인력의 질에 불만

○ 국내 인력의 질에 외국계 기업들의 불만이 여전히 외국 투자 유치의 장애가 되고 있음이 최근 열린 호치민시 지도부와 외국 기업의 회동에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시내의 외국 투자 안전은 5,310 건으로 시내 기업 총수 23 만 8,000 여개에 대한 비율은 약 2%에 불과 하지만 외국계의 일자리가 약 55 만명에 달해 시내의 노동자 총수의 22.5%를 차지함



## 대한상공회의소

- 국내 인력의 질이 기업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면 일자리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많은 기업 대표자가 보고 있음
  -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현지 법인 Intel Products Vietnam 의 사장은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질 높은 노동력 부족을 들어 "2,000 만 달러를 들여 학생을 해외 연수에 파견하고 귀국 후 직장에 배치하고 있음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국에서 훈련을 받으며 기능을 익힌 베트남인 근로자다"라고 말함
  - 한 소프트웨어 개발 하청 기업 글로벌 사이버 소프트의 사장도 국내에 정보 통신 기술(ICT)과 하이테크 분야 인력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인력 면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계약이 다수 있다고 함
- \* 출처: Vinahanin.com, 03.19

### 센트럴 그룹, 베트남에 사업 확대

-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출범은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태국의 대형 소매유통기업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옴
- 최근 태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센트럴 그룹(Central Group)이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센트럴 그룹은 올해 4 억 바트(baht)의 규모(약 2,640 억 동)로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에 유통센터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센트럴 그룹은 작년에도 베트남의 대도시인 호찌민시와 하노이시에 각각 유통센터를 개설함
-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형성에 따른 전문가들의 최신 평가에 의하면 소매유통 분야는 AEC 출범으로 더욱 큰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임
- 센트럴 그룹 외에 더몰(The Mall),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와 빅씨 마트(Big C) 등 대기업들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임
- 태국의 유통 대기업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웃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여 옴
- 태국의 유통 대기업 중 베를리 적커(Berli Jucker)그룹과 센트럴 그룹은 GDP 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함



- 작년 말 기준 베를리 적커(Berli Jucker)그룹은 베트남에 있는 편의점 95 개를 소유하고 있고, 베트남의 편의점 개발을 위해 독일계 창고형 마트 메트로(Metro)를 인수한 바 있음
  - 한편, 태국의 대형 소매유통기업인 센트럴 그룹은 자기 산하의 전자 매장 운영업체인 파워바이(Power Buy)를 통해 베트남 최대 가전 양판점 중 하나인 응웬킴(Nguyễn Kim)전자기기 판매 센터의 지분을 매입함
  - 센트럴 그룹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같이 약 3 억 명의 인구가 있는 이웃 국가들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소비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 베트남기업 동향

#### 베트남, 고속 도로 촉진 가속 총연장 2500km, 민간 투자 유치 강화

- 베트남은 고속 도로의 정비를 촉진한다. 동국 운수성은 2020 년까지 총 연장 2500km 에 이르는 고속 도로 건설을 목표로 함
- 동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고속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정비가 긴급 과제이다. 정비 추진을 위해 국내외의 투자 유치를 강화 하기로 했다고. 국영 베트남·뉴스 등이 보도함
- 총연장 약 6400km 의 고속 도로 계획이 있으며, 특히 남북 고속 도로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노선을 우선하여 정비한다. Dinh La Thang 운수 장관은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 20 년까지 고속 도로 건설 거리는 총연장 2689km 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 경우 2015 년까지 완공 예정인 고속 도로 건설비를 제외한 투자 총액은 394 조 6000 억 동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3 조 3000 억 동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임
- 장관은 고속 도로 정비를 시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민간 투자를 강화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 활성화와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현지 기업의 투자를 돕고 널리 국외 투자 유치 자세를 나타냈다. 또 건설하는 고속 도로에는 교통 관제 시스템 등에 대해 최신 기술을 채용할 방침임





- 동국에서는 지난해 9 월, 수도 하노이 근교 노이바이-동북부 라오까이 간(길이 245km)에서 베트남의 최장 고속 도로가 전면 개통했으며 올 2 월에는 남부 호치민-동나이 성 Dau Giay 간(길이 55km)에 최대 시속 120km 로 베트남에서 최고 속도 주행이 가능한 고속 도로가 개통됨
  - 개통식에 참석한 응웬 쩌우 수상은 "고속 도로 건설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생활 향상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함
  - 정부가 고속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국에서는 향후 이 분야 투자를 비롯해 관련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 같음
- \* 출처: Vinhanin.com, 03.15

### 건설 은행, 중앙 은행이 지분 전체 취득으로 완전 국유화

- 경영의 한계로 베트남 국가 은행이 완전 국유화를 결정한 베트남 건설 은행의 모든 주식이 5 일 무상으로 국가 은행에 양도됨
- 건설 은행은 자본금 3 조동(1 억 4286 만달러)으로 국가가 유일한 주주로 유한 회사로 재출범했다. 베트남 상업 은행(베트 컴 뱅크)의 지원으로 경영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다고 7 일 베트남·뉴스가 전함
- 국가 은행은 베트 컴 뱅크의 전 부행장을 신생 건설 은행의 회장으로 지명. 사장은 유임
- 국가 은행은 베트 컴 뱅크가 지원하기로한 건설 은행의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이 확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국가 은행의 부총재는 건설 은행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40 조동(19 억달러)으로 추산. 부실 채권을 베트남 자산 관리 회사(VAMC)에 매각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힘
- 부총재는 국가 은행이 새 소유자를 맞으면서 소비자의 안도감이 커지면서 시중 은행이 건설 은행과의 거래를 약속했으며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건설 은행은 2013 년 5 월 설립됐다. 2014 년에 간부 몇 명이 법규를 위반으로 체포돼 부실 채권 문제도 있고 부실화 하여 정부 특별 감독 하에 놓인 뒤 국가 은행이 올해 2 월에 전체 주식의 무상 취득을 한 바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15

### 민간 3개사, 다낭 공항 국제선 터미널 건설에 의욕 나타내

- Thang Long 에어 서비스사(TASECO), AOV 투자사, 하노이 건설 총 공사(HANCORP)는 교통 운수성에 다낭 공항 국제선 여객 터미널 건설을 신청함
- 연간 취급 400 만명의 여객 터미널을 BOT(건설·운영·이전)방식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함
- 최근에는 VietJetAir 과 베트남 항공이 Noi Bai 공항 제 1 터미널, T&T 그룹이 Phu Quoc 공항의 인수를 제안하는 등 다수의 투자가가 공항이나 터미널 운영권 취득을 신청함

\* 출처: Vinhanin.com, 03.19

### 페트로비엠타, 빈선 정유소 경쟁력 잃어

- 아세안(ASEAN)지역의 석유 수입세가 인하되면서 중궫(Dung Quát)지역의 정유공장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경우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페트로비엠타(Petro Vietnam) 석유 기업은 재정부에 궫응아이(Quảng Ngãi)성 중궫 지역의 빈선(Binh Sơn)석유정유소가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혜택 규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함
- 구체적으로는 제트(Jet) A1 과 같은 상품의 경우, 이전에는 세금이 25% 정도였는데 현재는 10% 정도로 현저히 떨어졌다고 전함
- 디젤유(Diesel) 또한 마찬가지로 30% 정도에서 5%정도로 하락하였으며, LPG 액화가스의 경우 관세율이 5%에서 0 으로 완전히 면제됨
- 반면 중궫에 위치한 공장의 상품에 대한 세금은 그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비엠타사는 내륙시장에서 기업이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
- 또한 정부가 이곳의 지정 세금을 아세안 수입 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해도, 이는 석유제품 수입에 직접적인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함



## 대한상공회의소

- 2015년에는 14 조 동 이상이 증가할 것이며, 2016-2018년에는 매년 16 조 2000억 동 정도가 증가할 것임
  - 뿐만 아니라, 페트로비엠티 사는 디젤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LPG와 같은 빈선 공장의 상품에 대한 세금을 2-5%대로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 한 해 동안 내야 할 금액은 약 1 조 동 이상에 달하며, 2016-2018년에는 매년 3 조 동 정도를 내야 함
  - 페트로비엠티 사는 이는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 자본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페트로비엠티사는 구체적인 다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장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빈선 석유 정유 공장의 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하롱 베이 1조 동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착공

- 지난 10 일 쩡닌(Quảng Ninh)성 하롱(Hà Long)시 깡베(Cấp Bé)바위의 동쪽에 현대적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착공되었다. 이는 쩡닌 도시발전 유한책임회사가 투자주로, 총 3 조 8990억 동 이상의 투자비용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임
- 깡베 바위 동쪽에 위치한 현대 도시지역의 규모는 약 17.89 헥타르로, 정확히는 하롱시 홍하이(Hồng Hải)읍에 위치해 있다. 프로젝트의 특이점은 주거지역과 상업 및 무역의 거리가 결합된, 문화, 무역, 관광의 중심지를 형성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신도시 지역에는 3 층짜리 별장 70 채, 4-5 층짜리 연립주택 231 채, 4 층짜리 상업 주택 125 채, 35 층짜리 아파트 및 복합서비스 빌딩 1 채가 지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2020 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3,000-3,500 명에게 일자리 부족 문제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임
- 특히,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 전체의 9.06%를 녹지 및 수면으로 만들어 하이꼬띠엔(Hai Cô Tiên)바위와 몏(Một)바위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점으로 둘 것이다. 중심지는 무역도시와 결합된 주거지역으로 높은 문화성, 무역 성, 관광성을 나타낼 것임



## 대한상공회의소

○ 설계 면에서의 특별한 점 외에도, 깎배 바위의 동쪽에 지어질 이 신도시는 하롱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앞쪽에는 광장-박물관-지방 성 도서관이 있고, 하롱 베이까지 볼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가졌다. 이는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리함을 더하고 각종 문화, 오락 활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팡닌 도시 발전 유한책임회사 팜퉁림(Phạm Tùng Lâm)회장은 깎배 바위 동쪽에 위치할 신 현대도시는 팡닌성이 북부지방의 경제 중심지가 되어 주변지역의 원동력이 되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지방성으로 거듭나는 데에 크게 기여할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전함

○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의 도시 설계사들은 품질이 높은 사회 인프라 및 인프라 기술, 그리고 평등한 생활환경 보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목표로 계획하고 설계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씩 시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함

○ 이 프로젝트에 드는 총 투자비용은 약 3 조 8990 억 동으로, 싱가포르 최고 설계회사인 설바나(Surbana)건축사무실이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2020 년 완공될 예정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빈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 더블 수상

○ 빈 그룹(Vingroup)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2015 년 베트남에서 진행된 ‘베스트 복합용도 개발’ (Best Mixed-used Development)과 ‘베스트 마트, 백화점 개발’ (Best Retail Development)부분에서 수상자로 선정됨

○ ‘베스트 복합용도 개발’ 과 ‘베스트 마트, 백화점 개발’ 분야 수상은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어워드(Asia Pacific Property Awards)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부동산 관련 상품들에게 제공하는 상임

○ ‘베스트 복합용도 개발’ 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건축 기준, 도시계획 기준, 환경보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창조성이 뛰어나야 하고 효율성 또한 높아야 하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 상을 수상한 하노이 시에 위치해 있는 타임즈 시티(Times City) 프로젝트는 36 헥타르 면적으로 고급 아파트, 쇼핑센터, 병원, 고급 편의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70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타임즈 시티를 2015 년 베트남의 ‘베스트 복합용도 개발’ (Best Mixed-used Development) 프로젝트로 선정함

○ 한편, 타임즈 시티(Times City)의 쇼핑몰 센터인 빈콤 메가 몰 타임즈 시티(Vincom Mega Mall Times City)는 200,000m<sup>2</sup> 면적의 규모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수상음악의 무대, 베트남 최대 수족관 등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빈콤 메가 몰 타임즈 시티는 2015 년 베트남에서 가장 우수한 ‘베스트 마트, 백화점 개발’ (Best Retail Development) 프로젝트로 선정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하노이시, 7개 공업단지 및 첨단기술단지 투자유치

○ 하노이시에서 첨단 기술 프로젝트, 클린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등 중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됨

○ 산만하게 투자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노이시는 7 개의 공업단지와 첨단기술단지의 계획 작성을 완료함

○ 또한 하노이시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 시청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 현재 하노이시에는 남 하노이(Nam Hà Nội) 지원산업단지(1 단계, 면적 72 헥타르), 팡밍(Quang Minh) 공업단지(2 단계, 20 헥타르 확대), 속선(Sóc Sơn) 클린 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생물산업 단지, 동아잉(Đông Anh) 산업단지 등과 같이 7 개의 공업단지와 첨단기술단지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하노이시는 기술적 가치가 높은 산업단지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 공예마을들을 공고히 하면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임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응웬옥뚜언(Nguyễn Ngọc Tuấn)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업단지 및 첨단기술단지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이다. 하노이



시청에서 투자유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군, 구들이 토지보상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을 지시함

○ 하노이 시청에서는 하노이에 진출하는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약속함

○ 다른 한편으로 하노이시는 투자 수속절차 지원, 토지임대 지원, 우대자금대출 제도 등 여러 가지 우대 정책으로 기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베트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기대치 높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들은 종합적인 소비 체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CBRE의 조사에서 밝혀짐

○ 이 지구의 소비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적당한 가격, 청결과 안전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음

○ 그러나 값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베트남의 소비자는 안전성과 청결을 값 이상 중요한 요소로 꼽았음

○ 베트남인은 다양한 소매점을 쇼핑 장소로 이용하고 있지만, 특정의 소매점, 백화점과 외국 브랜드의 여부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음

○ 기본적인 요소인 가격, 청결감, 안전성과 비교하면, 오락 시설은 별로 중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쇼핑 센터가 점점 식량과 오락 서비스 이벤트에 주력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사 결과는 기대에 어긋난 것처럼 보임

○ 그러나 18 세에서 34 세까지 응답자의 5 할 이상이 오락 시설은 의사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 조사에서 밝힘

○ "젊은 베트남인 소비자 층의 급속 성장에 따른 음식을 포함 레저와 오락이라는 체험의 제공이 쇼핑 센터의 장기 경쟁력 향상과, 또 소매 시설로서의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CBRE Retail Services 동남 아시아 지사 Richard Leech 이사는 말함



- 조사 응답자의 78%는 맘에 드는 쇼핑 센터에 가기 위해 30 분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상관 없다고 답하고 있다."앞으로 몇년 안에 지하철 개통으로 소비자들의 이동 시간에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짧아질 것이라고 "CBRE 베트남 조사 컨설팅부의 Duong Dung 부장은 말함
  - 조사 응답자의 25%는 향후 2 년 이내에 점포에서 쇼핑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 40-50%의 응답자는 데스크 톱/랩탑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쇼핑할 기회가 현재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함
  - 놀라운 것도 55-64 세 연령층에서 더 많은 응답자(69%)들이 식품 이외의 구입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이용을 현재보다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번 CBRE 최초의 소비자 조사는 2014 년 8 월에 실시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주요 11 개 도시에 거주하는 1 만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하노이시 및 호찌민 시 18 세에서 64 세까지 1000 명이 조사에 응답함
- \* 출처: Vinahanin.com, 03.15

### 베트남, 고위공직자 해외에 자산축적 금지 추진

- 베트남이 정부 고위 관료와 공산당 간부에 대해 해외 예금계좌나 해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함
- 15 일 일간 베트남뉴스와 뚜오이찌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내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정부패 대책을 제시함
- 이는 고위 공직자가 국내에서 각종 이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이를 국외로 빼돌리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행태를 막으려는 것임
- 부패 공직자의 은닉재산 환수 조치를 강화해 국고에 편입하거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2013 년에 부정부패 자산의 약 10%만 회수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이 경제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공직자가 연루되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작년에는 국영 해운업체 최고 경영진 2 명이 해외설비 구매 대가로 사례비를 챙기고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음





\* 출처: Yonhapnews, 03.15

### 베트남 스마트폰시장 급성장...삼성, 저가폰에 '고전'

- 급성장하는 베트남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저가 제품의 공세로 줄어들고 있음
- 15 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IDC 는 2014 년 베트남에서 2 천 870 만대의 휴대전화가 팔려 전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함
- 이중 스마트폰은 1 천 160 만대로 57% 급증했다. 스마트폰은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의 40%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피쳐폰을 제치고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2년 54%에서 2013년 38%, 2014년 26%로 떨어짐
- 반면 삼성전자의 주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16%에서 2014년 24%로 높아졌다. 작년 4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한 MS는 베트남에서 중저가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는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을 1%에서 8%로 끌어올렸다. 화웨이는 올해 저가폰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임
- 대만 기업 에이수스의 스마트폰 젠폰은 2013년만 해도 베트남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
- IDC 베트남의 보레 탐 타잉 시장분석가는 사이공타임스에 "현재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60%가량이 대당 150 달러(17만원) 이하"라며 "저가폰이 휴대전화 시장의 빠른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함
-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의 고급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지하지만 저가폰 공세가 커지고 있다"며 "마케팅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03.15

### 베트남, 동남아국가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 1위





-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6일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의 '2015년 1분기 동남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토대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 184%로 1위를 기록함
- 다음으로 태국(85%), 싱가포르(81%), 말레이시아(80%)가 2~4위에 올랐다. 노동 투입량 대비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이윤이 커짐
- 보고서는 베트남이 경쟁국가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 덕에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외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당초 목표치보다 19% 늘어난 202억 달러에 달함
- 이중 한국이 73억 달러(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함
- 그러나 2013년 ILO의 조사 결과 베트남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싱가포르의 15분의 1, 한국의 10분의 1, 말레이시아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전문인력의 교육·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베트남소리방송(VOV)이 지적함
- \* 출처: Yonhapnews, 03.16

### 2014년 휴대 전화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3%증가, 가격 저하가 영향

- IT 전문 시장 조사 회사 IDC 베트남이 11일 발표한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휴대 전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의 휴대 전화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13% 늘어난 2870만대임
- 이 중 스마트폰 판매량이 가장 많아 전년 대비+57% 늘어난 1160만대, 시장 점유율 41%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5년에도 계속 크게 증가하고 퓨처 폰(종래형 휴대 전화)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음



- IDC 의 전문가는 "스마트 폰의 가격 저하가 판매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판매된 스마트 폰 6 할이 150USD 이하이다"라고 말함
  - 2014 년의 메이커별 스마트 폰 판매량 1 위는 한국의 삼성전자로 시장 점유율은 2012 년 54%에서 26%로 크게 감소했지만, 1 위를 유지했다. 한편 마이크로 소프트 모바일(Microsoft Mobile, 옛 사명:노키아)의 점유율은 전년의 16%에서 24%로 증가하고 있음
  - 덧붙여 IDC 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대형 화면의 팹 레트(Phablet, 스마트 폰과 태블릿의 요소를 갖춘 단말기)의 판매 대수가 해외 시장에 비해 늘지 않고 있지만 가격 저하에 의해 화면 기종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 출처: Vinahanin.com, 03.15

### 연초 2개월간 무역 수지 12.1억 USD 적자

- 베트남 세관 총국은 2015 년 연초 2 개월간의 수출입 상황을 발표함. 2 월은 Tet(설날)기간과 겹쳐 수출액 및 수입액 함께 전달 대비 기준으로 크게 감소함
  - 단, 수입액이 전월 대비 ▲ 23.9%감소한 데 비해 수출액은 동 ▲ 29.0%감소로 커 2 월 무역 수지는 ▲ 9 억 6600 만 USD 의 대폭적인 적자를 냄
  - 2015 년 연초 2 개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8.1% 늘어난 229 억 7100 만 USD, 수입액은 이+21.9% 늘어난 241 억 8500 만 USD 에서 무역 수지액은 ▲ 12 억 1300 만 USD 이 되어, 적자액은 수출 총액의 5.3%에 달한다.연초 2 달 만에 무역 수지 적자가 급속히 확대됨
- \* 출처: Vinhanin.com, 03.19

### 베트남산 청과물의 50%는 중국에 수출

- 베트남 청과물 협회(Vinafruit)의 사무국장에 따르면 2 월 청과물 수출은 8,000 만 달러, 2 개월에서는 1 억 8,600 만달러로 전년 대비 99%에 상당함
- 사무국장에 따르면 1 월 중국 청과물 수출은 5,300 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4%증가, 수출 총액의 50%를 차지함



○ 식물 보호국에 따르면 연초 2 개월에 베트남은 과일 4 개품목(용과, 람부탄, 용안, 망고)를 미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에 945t 수출했다. 미국은 베트남산 용과의 최대 수입국임

\* 출처: Vinhanin.com, 03.19

### 베트남, EC시장, 2015년에도 계속 확대 성장

○ 베트남의 EC 시장은 특히 B2C 비즈니스에서 2015 년에도 계속 강한 성장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Lazada.vn 의 CEO, Alexandre Dardy 씨는 베트남 뉴스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e 커머스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대"라고 말함

○ 또 e 커머스가 발전한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증가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더해 경제가 발전한 것도 e 커머스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며 소매 업체나 브랜드 파트너 기업, 배송 업체 등 많은 사람이 인터넷 홈쇼핑에 관심을 보이게 됐다고 함

○ Dardy 씨에 따르면 예를 들어 올해 1 월 이 회사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 배까지 성장했다. 또 지난해 매출 성장률은 2.5 배의 높은 성장률임

○ 베트남 상공성 및 전자 상거래 IT 국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의 소비자가 "향후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산다"라고 응답해 e 커머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함

○ Lazada.vn 과 Sendo.vn 등 EC 기업 몇 개사는 최근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공표함

○ 경제 '투자지'의 새로운 기사에 따르면 Lazada.vn 은 지금까지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한편 Sendo.vn 은 일본 기업 3 곳과 협력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외국계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향후도 베트남 EC 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상공성 전자 상거래 IT 국의 Tran Huu Linh 국장은 '투자지'의 인터뷰에서 외국계 EC 사이트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59%까지 이른다고 말함
  - Dardy 씨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성공은 반드시 투자 자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EC 기업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함
  - 또 Lazada.vn의 성공에 대해서는 수많은 투자 기업 중에서도 특히 Rocket Internet of Germany 사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며, 동사가 가지는 IT 톨과 인프라, e 커머스에 필요한 기술 등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함
  - IT 국의 조사 결과 지난해 베트남에서 e 커머스 B2C 비즈니스로부터 얻은 수익은 동국의 소매 매출액의 2.12%를 차지하는 29 억 7000 만 달러였다고 전해짐
- \* 출처: Vinhanin.com, 03.19

### 베트남,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발족으로 전통 수공업 마을에 새로운 위기

- 베트남 경제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취약한 부분인 전통 수공업 마을은 2015 년 말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설립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예상됨
-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설립 후에는 아세안 지역 내 관세의 대부분이 폐지되어 대량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베트남 제품은 국내 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음
- 최근 열린 장래 전망에 관한 포럼에서 베트남 수공업 마을 협회 자문 위원회의 Vu Quoc Tuan 위원장은 수공업자에 대한 제안을 함
- 우선 수공업 분야의 기업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Tuan 위원장은 강조했다. 계획 투자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의 조사 대상 기업 중 76%가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관계 기업이 경합 제품 조사를 벌여 자사 제품의 품질 향상을 무엇보다 우선하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 설립에 따른 변화에 베트남 공업에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고 Tuan 위원장은 말함
- Tuan 위원장은 또 전국의 수공업 마을에서 주로 가내 공업이나 가족 경영의 소규모 기업을 연계시켜 수공업 부분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포럼에서는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와 베트남 수공업 마을 협회가 공동으로 전통적 수공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입안과 정부의 보조금 증액을 호소함
- 3 월 하순에는 베트남 수공업 마을 협회와 상공성, 재무성 기타 관계자가 수공업 마을에 관한 정책의 실시 상황을 재검토, 문제 해결에 대해 협의하는 모임이 예정돼 있음

\* 출처: Vinhanin.com, 03.19

### 자동 정산 톨게이트 시범 시행

- 지난 10 일, 하노이시 교통운송 부는 1 번 국도와 호찌민 띠이응웬(Hồ Chí Minh Tây Nguyên)거리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ETC)을 사용한 자동 정산 톨게이트 및 단속 시스템을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함
- ETC 요금 자동 정산 톨게이트는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35 곳의 톨게이트에 대대적으로 설치하기 이전에 황마이(Hoàng Mai)톨게이트, 1 번 국도 Km 604+700 톨게이트, 그리고 호찌민 거리 Km 1813+650 톨게이트, 이 3 곳에서 시범 시행될 것임
- 이는 미국이 개발한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 기준인 ISO/IEC 18000-6C 를 이용한 기술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기술의 장점은 투자비용이 낮고 작동법이 간단하며, 차량 인식 속도가 매우 빨라 정확하고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이 기술이 도입된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차주는 이-태그(E-tag)를 발급받아 차 유리 앞면에 부착한 후 결제를 할 수 있는 계좌를 함께 지참해야 함
- 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면 인터넷, 카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요금을 결제 할 수 있음
-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나 E-tag 를 붙이지 않은 차량의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일반 요금 정산 시스템(MTC)으로 전환됨
- 또한 톨게이트에서 거래되는 모든 정보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져 보관된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 끝나면, 각 창구마다 총 수익이 정산되어 은행의 정산 보상 시스템을 통해 매우 정확하고 명백하게 BOT 투자자의 계좌로 이체됨



-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BOT 투자자들이나 국가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와 각종 정보를 조사하거나 검열할 수 있다. 지금까지 BIDV 은행과 타스코(Tasco) 투자주는 자동 정산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립을 마침
  - 또한 모든 시스템은 점검을 마쳤으며, 3 월 중에 시범 시행을 시작하고 오는 5 월에는 대대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마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베트남, 휘발유 오일에 대한 환경 보호세 3배 인상

- 지난 3 월 10 일에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휘발유, 오일 등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 보호세를 3 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결의함
-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작성한 제안서를 설명하면서, 딩띠엔중(Dinh Tiên Dung) 재정부 장관은 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적 협정에 따라 가솔린 수입관세 철폐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 또한 딩띠엔중 재정부 장관은 환경보호세의 인상은 위에 언급한 이유 외에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임
- 이번 환경보호세 인상 방안에 따르면 환경보호세를 현행 휘발유 1 리터당 1,000 동(VND)에서 3,000 동으로 인상되고, 윤활유는 현행 1 리터당 300 동에서 900 동으로 인상된다. 다른 연료에 대한 환경보호세도 3 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환경보호세 인상 안에 관해 응웬반자우(Nguyễn Văn Giàu) 국회 경제 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보호세의 인상이 기업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함
- 환경보호세 인상이 휘발유, 오일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딩띠엔중 재정부 장관은 “환경보호세 인상과 수입 관세 인하(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라고 말함



## 대한상공회의소

○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는 등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의 인상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등유를 사용하는 자는 주로 시골의 빈곤층 사람이나 산악지대와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사람들이라는 점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7





###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 Projects of calling investment in Lao Cai Province

No	Name of project/ sector	Location of performance	Scope	Investment capital (billion dong )	Method	Contact
I INDUSTRIAL AND SMALL INDUSTRIAL FIELD						
1	Project of deep production and manufacture from primary copper	Tang Loong industrial zone	Based on project (concurrently capacity is 10.000tons/year)	100	JV, FDI, directly domestic	Management board of provincial industrial zones
2	Project of agricultural product manufacture and maintenance (plum, pineapple apricot)	Bac Ha district	10.000 ton/ year	25	JV; FDI, directly in domestic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3	Project of agricultural product manufacture factory (corn, soybean...)	Si Ma Cai district	10.000 –12.000 ton/ year	20	JV; FDI, directly in domestic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4	Project of pineapple manufacture factory	Ban Lau commune, Muong Khuong district	10.000 ton/year	15	FDI, directly in domestic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5	Project of Sapa medicine manufacture and planting	Sa Pa district, Lao Cai City	5.000 - 10.000 ton/year	20	JV; FDI, directly in domestic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6	Project of temperate fruit planting with product consumption and manufacture	Lao Cai City			directly in domestic	Bac Ha district , Sa Pa
AGRICULTURAL – FORESTRY – AQUATIC PRODUCTS						
1	High qualified tea planting project	In Sapa, Bat Xat	100 ha	14	JV; FDI, directly in domestic	People's committee of Sapa and Bat Xat district
2	Economic and landscape forestry planting project	Communes in Muong Khuong district	1.100 ha	16	JV; FDI, directly in domestic	People's committee of Muong Khuong district
3	High qualified flower and vegetable project for exporting	Based on approved flower and vegetable planning	Based on projects	15	FDI, directly in domestic , connecting co-operative to farmers	People's committee of Sapa and Bat Xat, Lao Cai City
II TRADING, TOURISM AND SERVICE						
1	Project of Pho Rang town center construction	Bao Yen district	2 floors, 136 kiot	12	BOT, FDI, investments directly in domestic	People's committee of Bai Yen district
2	Ecological tourism project, cultural village tourism in Can Cau lake – Chay river tourism	Si Ma Cai District	50 ha	150	BCC, JV, investments directly in domestic nước	Department of culture, information and tourism
3	Binh Minh trading center	Binh Minh	4 ha	30	JV; FDI,	People's committee of





	project	ward, Lao Cai City	(construction land area: 5ha)		directly in domestic	Lao Cai City
4	Project of community ecological tourism village construction	Trung Do hamlet, Bao Nhai commune, Bac Ha district		15	JV; FDI, directly in domestic	Department of culture, information and tourism
5	Project of Bac Ha yard, hotel construction project	Bac Ha town, Bac Ha district	10ha	20	JV; FDI, directly in domestic	People's committee of Bac Ha district
6	Luxury hotel project in Lao Cai new urban area - Cam Duong	Lao Cai City	5- 10ha	100-120	JV; FDI, directly in domestic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lanning
V	ENVIRONMENT FIELD					
	Project of solid waste treatment factory construction in Tang Long industrial zone	Tang Loong town	50 ha	100-120	JV; FDI, directly in domestic	Management board of industrial zones
V	INFRASTRUCTURE FIELD					
	Lao Cai airport project	Gia Phu and Bao Thang Commune.	Standard of 3C grade	1,000 - 1,500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lanning